

## ■ 주요 기사

### ○ 국회, 근로시간 단축 잠정 합의 (5건)

중앙	<a href="#">‘주당 근로시간 68 → 52시간’ 국회 잠정합의</a>
	<a href="#">근로시간 줄이되 처벌은 한시 면제 ... 12조원 휴일근로 가산금 합의 안 돼</a>
매경	<a href="#">근로시간 68→52시간...고용시장 쇼크</a>
환경	<a href="#">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전격 합의...주당 68시간→52시간</a>
	<a href="#">기업 인건비 연 12조 늘어...‘구인난’ 중소기업 존폐 위기</a>

### ○ 통계청, 고용 통계 관련 (2건)

조선	<a href="#">‘시간제 근로자’ 400만명 넘어섰다</a>
	<a href="#">일자리 경쟁... 젊은 60代, 선배 60代를 밀어낸다</a>

### ○ 일본 저출산 대책 관련 (2건)

한겨레	<a href="#">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a>
	<a href="#">‘육아 왕국’ 돗토리현 지사 “나부터 이쿠보스 됐지요”</a>

### ○ 미국의 환경규제 축소 (1건)

매경	<a href="#">美 환경규제 축소에 현대·기아차 好好</a>
----	--------------------------------------

## ■ 주요 칼럼 · 사실

### ○ 공무원 평가체제 재편 관련 (1건)

동아	<a href="#">[열린 시선]성과 위주로 공무원 평가 바꿔야</a> (임성은 서경대 교수)
----	---

### ○ 일본 취업시장 변화의 시사점 (1건)

매경	<a href="#">[World &amp; Now] ‘100% 육박’ 日대졸취업률의 시사점</a>
----	---

### ○ 미, 환경 이슈 대응 변화와 국내 환경정책 (1건)

환경	<a href="#">[정규재 칼럼] 치열한 논쟁 부른 트럼프 환경 예산</a>
----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a href="#">'시간제 근로자' 400만명 넘어섰다</a> A1면
		내용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기 취업자 수가 지난달 400만명을 넘어섬. 취업자의 절대다수는 비정규직. 2월 전체 취업자(2578만8000명) 중 단기 취업자 비중은 15.6%로서 1년 전 14.9%보다 늘어남
	고용 복지	제목	<a href="#">일자리 경쟁... 젊은 60代, 선배 60代를 밀어낸다</a> B1면
		내용	노인 일자리 시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 노인들이 60대 후반 노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점.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노년층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두 세대에 걸쳐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음
		제목	<a href="#">삼성 계열사 10곳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안 뽑는다"</a> B3면
		내용	삼성카드·중공업·엔지니어링·물산(건설)·자산운용·벤처투자·웰스토리·경제연구소·서울병원·코닝어드밴스글라스 등 10곳이 올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	노동	제목	<a href="#">'주당 근로시간 68 → 52시간' 국회 잠정합의</a> A1면
		내용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4년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준다.
		제목	<a href="#">근로시간 줄이되 처벌은 한시 면제 ... 12조원 휴일근로 가산금 합의 안 돼</a> A14면
	내용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정치권이 의견을 모으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큰 틀은 잡혔다.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권이 참여하게 대립했던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 문제를 정리하면서다.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동아	노동	제목	<a href="#">[열린 시선]성과 위주로 공무원 평가 바꿔야</a> (임성은 서경대 교수) A28면
		내용	공무원과 정부의 평가체계를 성과 위주로 재편해야.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고용과 부가가치가 증대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목표가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함
	고용 복지	제목	<a href="#">삼성 첫 계열사별 공채... 4곳은 상반기 채용 없어</a> A8면
		내용	삼성그룹 16개 상장사 중 4개 계열사(부문 포함)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재계는 삼성의 변화를 계기로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및 경력직 채용으로 변해갈 것이라 분석
		제목	<a href="#">한국 성장률-고용, 미국에 추월 당해</a> B4면
	내용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의 성장률은 0.5%(전 분기 대비). 이로써 0.4%에 그친 한국을 2개 분기 연속 앞질러. 한국의 실업률도 지난달 5.0%로 16년 만에 미국(4.7%)보다 0.3%포인트 높았음	

매체명	주 제	내 용	
매경	노동	제목	<a href="#">근로시간 68→52시간…고용시장 쇼크</a> A1면
		내용	환노위에서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무적 합의가 이뤄짐.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고용 복지	제목	<a href="#">[World &amp; Now] '100% 육박' 日대졸취업률의 시사점</a> A33면
		내용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투자·소비(임금인상)의 원천인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버틴 결과
	환경	제목	<a href="#">美 환경규제 축소에 현대·기아차 好好</a> A22면
		내용	환경오염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국 시장 내 인기가 높아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현대·기아차의 차량 판매 유연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석
한경	노동	제목	<a href="#">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전격 합의…주당 68시간→52시간</a> 1면
		내용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20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제목	<a href="#">기업 인건비 연 12조 늘어…'구인난' 중소기업 존폐 위기</a> 2면
		내용	기업들에 12조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보충에 따라 8조원 이상 부담을 질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제목	<a href="#">[정규재 칼럼] 치열한 논쟁 부른 트럼프 환경 예산</a> 34면
		내용	한국에서는 환경 히스테리는 있어도 과학적 논쟁은 없다. 잘못 말했다간 매를 벌게 된다. 팩트를 찾기도 어렵다. 4대강은 아직도 정치 논쟁 중이다. 과학적 논쟁조차 온통 정치가 뒤덮고 있다. '탈지식 사회'다.
한겨레	고용 복지	제목	<a href="#">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a> A10면
		내용	아베의 '1억 총활약 플랜'은 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로 올리고, ②재택근무, 유연근무도 장려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③중학생까지 10~15만원 의 아동수당을 지급, ④ 직장내 남녀평등 추진하고 ⑤ 지방을 살리는 것
		제목	<a href="#">'육아 왕국' 돗토리현 지사 "나부터 이쿠보스 됐지요"</a> A10면
		내용	일본 47개 현에서 인구(57만4천명)가 가장 적은 돗토리현은 2014년부터 산간 지역의 보육료를 무상화, 2015년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그 결과 '08년 1.43(전국 17위)였던 출산율은 '15년 1.65(전국 7위) 상승
경향	고용 복지	제목	<a href="#">미혼 남녀 10명 중 4명 "자녀 없어도 괜찮아"</a> 11면
		내용	20~30대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거나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키울 수 없다면 아이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6명이나 됐다.